

전봉준 활약상, 판소리로 재구성

‘녹두장군 전봉준’, 10일부터 전주·서울·정읍서 3회 공연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했던 전봉준 장군의 활약상을 재구성한 창작판소리 ‘녹두장군 전봉준’ 공연을 선보인다.

‘녹두장군 전봉준’ 공연은 정읍시가 주최하고 창작판소리연구원(원장 임진택)이 주관한다.

이번 공연은 19세기 말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 아래 봉건제도의 수탈과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전봉준 장군의 활약상을 판소리로 엮어 낸 공연이다.

누구나 평등 하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사상과 더불어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앞두고 동학농민혁명이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재 우리가 살



월 10일 오후 8시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3회에 걸쳐 펼쳐진다. 총 3부로 구성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주제별

아기는 대한민국의 정신적 토대이며 살아있는 정신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연은 오는 10일 오후 7시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을 시작으로 19일 오후 8시 서울 돈화문국악당, 12

로 국내 최고의 기량을 갖춘 명창 3인이 무대에 오른다.

1부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이자 판소리 ‘수궁가 예능 보유자인 왕기석 명창이 ‘탐학을 금(禁)해주시오’를 주제로 교조 신원과 고부 봉기의 내용을 다룬다.

2부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이자 판소리 ‘심청가 예능 보유자인 송재영 명창이 ‘말아 고 통반는 민중은 이 시작으로 일어서다’를 주제로 무장기포와 황토현 전승 전주성 입성을 소리한다.

또 3부는 오랜 기간 동학에 천착하며 이번 작품의 창본을 완성한 관대 임진택이 ‘갑오세화보’를 주제로 집강소 설치와 우금치 전투 등의 내용을 노래한다.

시는 본공연에 앞서 지난 10월 28일 이평면 조소마을 전봉준 유적(고택)에서 시연 공연을 선보인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우석대학교 공자이카데미는 지난 1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에서 ‘한중 서화 교류전’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수교 30주년... ‘서화 교류전’ 개막

소리문화전당서 100여점 전시

우석대학교 공자이카데미는 지난 1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에서 ‘한중 서화 교류전’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장청강(張承剛) 주광주총영사, 차홍규 한중미술협회장, 상바이(商柏) 북경중한미술연합회 부회장, 위진광(呂金光) 산서사범대학 미술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개막 행사에 앞서 주요 내빈과 관람객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류전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중 양국과 미국·이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50명의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됐다. 또한 ‘호남 속 중국’ 사진영상 작품 20여 점도 함께 공개됐다.

남천현 총장은 “오늘의 지리가 그간 쌓아온 양국의 우정을 확인하고, 호남의 역사와 문화 속에 깃들여 있는 중국 문화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류전은 우석대학교 공자이카데미가 주최하고, 한중미술협회·베이징 한중서화가연합회·태원사범대학 예술학원·산서사범대학 미술학원·실크로드영상연구소가 주관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전라북도·중국주광주총영사관·태원사범대학 국제실크로드문화예술연구소·산동사범대학·광주 차이나센터·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한국문화·한중문화·전북일보가 후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18일까지

문화예술진흥본부 심의위원 공모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달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19일 간 하반기 문화예술진흥본부 심의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시각예술, 문학, 예술교육, 문화일반 등이다.

모집된 심의위원 후보자는 추후 재단 문화예술진흥본부 지원사업 심의 및 평가 선정사업의 전문가 현장평가 및 컨설팅 등에 일부 참여하게 된다.

심의위원 후보자로 신청을 원하는 자는 공고문 내용을 참고해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jctart@jct.or.kr)로 접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그의 연기 인생을 이야기하다”

9일 국립전주박물관서 ‘이호재의 연극이야기’



국립전주박물관(관장 홍진근)은 오는 9일 강당에서 대한민국예술원의 예술특별강연회 ‘이호재의 연극이야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예술특별강연회는 대한민국 예술원 소속의 문학, 미술, 연극·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원로 예술인들이 화원으로 선출돼 문화예술분야의 공적과 성과를 일방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직접 강사로 나서 문화 예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강연은 연극·영화 분과 소속의 이호재 배우가 진행, 본인의 연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편, 이호재 배우는 1963년 연극 ‘생쥐

와 인간’으로 데뷔해 올해로 데뷔 60주년을 맞는 원로배우로, 최근까지 검은 사제들, 국가부도의 날, 미스터선샤인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다.

특히 공연부분 서울시문화상과 보관문화훈장 등 여러 차례 포상도 받았다.

강연은 별도의 예약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국립전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강연은 평소 지역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배우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찾아 함께 소통하고 호흡할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김영태 기자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5기 입주작가들 작업실 공개

전주문화재단, 3~5일 ‘오픈스튜디오: 사유의 시간’ 진행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3~5일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를 개방하는 ‘오픈스튜디오 : 사유의 시간’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문화재단 및 팔복예술공장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팔복예술공장은 국내·외 예술가를 대상으로 예술교류 활동증진과 안정적인 창작공간을 제공, 2018년부터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 선정된 권다예, 김영봉, 김희선, 문재원, 윤미류, 장영애, 정희정은 이번 오픈스튜디오를 통해 관람객과 직접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오픈스튜디오: 사유의 시간’은 5기 입주작가 7인의 작업실을 공개하는 행사로, 그동안 작가 본인과 몇몇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 사적 공간이었던 작가의 작업실이 오픈스튜디오 기간 동안 열린 공간으로서 살아있는 예술인과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공적 장소로 변화하는 행사다.

특히 이번 오픈스튜디오는 단순히 작가의 작업실을 공개하는 행사를 넘어, 지역민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작가의 작업실 관람과 지역민 연계 프로그램은 사전접수(팔복예술공장 인스타그램 DM 및

유선접수 ☎063-212-8801) 및 일부 현장접수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문화재단 및 팔복예술공장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북 건축문화제 개막행사 취소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라북도 건축문화진흥연합회는 2일 ‘제23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과 온라인 전시를 통해(www.jtaf.or.kr) 개최한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로 국가예도 기간이 지정됨에 따라 시상식 등 공식 개막행사는 취소하고, 행사를 간소화해 작품을 전시한다.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모 수상작, 한·중·일 국제 작품, 서울시 건축문화제 교류전, 전북개발공사와 교육청의 공공건축 작품전, 한옥 모형 기획전시, 새만금 개발과정을 담은 특별전이 열린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수상작 전시를 통해 도민들에게 건축문화를 친근하게 소개하고, 건축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